응용생태연구 3(1) : 135~151, 1989

영국 국립공원의 관리[1]

이 경재[2]

The Administration of National Parks in England and Wales[1]

Kyong-Jae Lee[2]

1. 자연경관

영국의 정식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로서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성되어 있다. England의 면적은 130,363km², 인구는 4,600만명, Wales는 각각 20,764km², 270만명, Scotland 는 각각 78,772km², 520만명, Northern Ireland는 각각 24,147km², 190만명으로서 영국의 전체면적은 244,046km²이고 전체인구는 5,580만명에 달하며 인구밀도는 229.3 인 / km²이다.

Scotland는 England 및 Wales와는 별개의 행정기구를 갖고서 자신들의 자치법으로 통치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법제도와 보건 · 교육제도를 갖고 있으나 고유의 의회는 없고 London의 상원에 16명, 하원에 71명의 의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C공동체에 독립적인 회원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북위 50~59°에 위치하나 기후는 난류인 북대서양 해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신선하고 겨울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나타내며, London의 1월 평균기온은 4.2℃, 7월 평균기온은 17.6℃이다. 연간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아, Scotland는 2,000~4,700mm, Wales는 1,000~1,500mm, England는 600~700mm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일계절 집중강우현상은 없고, 3~4일 간격으로 계속하여 비가 내린다.

Scotland와 Wales는 해발 400~900m에 위치하며 편마암, 결정판암, 사암, 석회암, 화강암등의 단단한 암석을 모암으로 하는 지질을 갖고 있고 빙하침식작용으로 빙식지형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England 는 2, 3첩기의 사암과 점판암으로 구성된 평야가 주를 이루며 해발 600m의 낮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다. 영국은 전국토면적의 78%인 1,899만 ha가 농업용지로서 이중 경작지는 698만ha, 항구목초지가 508만ha, 조성목초지가 651만ha이며 농장수는 28만 5천개소에 달한다.

영국은 BC 4,000년경부터 울창한 삼림의 나무를 벌채하여 농경지 및 방목지등을 조성하면서 다량의 숲이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서기 1086년 William I 세의 통치시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토중 15%정도의 숲만이 남았으며, 그후 계속 선박의 건조와 철광석의 제련용으로 이용, 벌채량은 더욱 증가되어 1910년대에는 5%정도의 숲이 남았었다. 1차세계대전당시 독일에 의해 해안선이 봉쇄되어 목재수급에 심한 타격을 받은 후 전쟁이 끝나자 1920년대에 들어와 산림청(Forest Commission)을 설치하고 국유림에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기시작

1 접수 11월 20일 Received on Nov. 20, 1989.

2 서울시립대학교 문리과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 Seoul City Univ., Seoul, 130-743, Korea.

하여 현재는 전체면적의 10%정도의 숲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연림은 거의 없어지고, 반자연림과 인공림만이 존재하며 생태계도 몹시 교란되어 숲속은 물론 들판에서 뱀, 개구리, 메뚜기, 잠자리등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 키가 낮은 반목본성인 히스(Heath)와 콩과 식물로서 가시덤불을 이루는 고스(Gorse)가 우점종을 이루는 히스랜드(Heathland) 와 무어랜드(Moorland)가 비교적 해발고가 높은 곳에서 대규모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영국 특유의 경관이 연출되고 있다.

2. 국립공원의 역사

18세기의 산업혁명이후 철도개설의 증가로 일반 대중들이 지방구석까지 접근이 용이해지자 자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영국국토는 낮은 구릉지가 대부분이기에 영국인은 모자와 방수옷을 걸치고 양떼와 같이 산책을 매우 즐긴다. 그러나 전국토의 80%가 사유지인데 대부분의 사유지는 돌담과 수벽으로 에워싸여져 있어 산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18세기때 몇백명의 사람들이 Peak District 에 모여 사유지의 돌담과 수벽을 넘어 높은 산으로 향하여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지에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을 외치다가 모두 사유재산침입죄로 체포된적이 있었다. 이것이 레크레이션장소제공으로서의 국립공원지정의 동기가 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서 The National Trust, The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Nature Reserves, The County Naturalist's Trusts 등의 단체가 창설되어 식물 및 야생동물의 보호와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1872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Yellowstone국립공원이 지정되는등의 일 들이 자연보전을 위한 국립공원지정의 동기가 되었다.

1929년 Macdonald수상이 The Addison Committee 에 영국내에 1~2개소의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1931년에 이 위원회는 자연경관의 보전, 국민들의 자연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증대, 야생동물의 보전의 3가지 목적을 위해 국립공원을 설정하고, 관리기구로 The National Park Authority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으나 때마침 몰아친 경제불황으로 이 제안은 보류되었다. 1945년 The Scott Committee(농촌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문제검토 위원회)의 위원인 John Dower가 특색있는 경관의 보전, 국민에 대한 레이크레션장소제공, 야생동물, 건물 및 역사적 유물의 보전, 농촌경관의 유지를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해야 하며, 또한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s Commission)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자 정부에서는 이안을 받아 들였다. 그리하여 Arthur Hobhouse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당위원회에서는 1947년에 12개의 국립공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1949년에 의회에서 국립공원법(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을 통과시켰으며, 그후 법에 의해 자연경관의 보전과 국민에 대한 레크레이션장소의 제공을 위해 지정될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공원청(National Parks Commission)을 창설하고 1951년 4월부터 1957년 4월까지 10개소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였다. 1968년에는 국립공원청을 풍치보전청(Countryside Commission)으로 변경하고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준국립공원지역, 자연경관지역, 자연보전지역등도 관리하게 하였다. 한편, 1988년 5월에 1개소의 국립공원을 추가지정하여 현재는 11개소가 된다.

1972년에 의회에서 통과하여 1974년 4월에 실시하게 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England는 6개의 대도시의 주와 39개의 지방주, Wales는 8개의 주로 변경되었는데 이때 국립공원의 관리책임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주정부로 이양시켰다. 또한 1974년 4월에 국립공원정책검토위원회(The National Park Policies Review Committee)에서 당시의 국립공원정책을 검토 보고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국립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틀이 잡혀지기 시작하여 중앙정부에 의한 예산지원이 확정되고 또한 국립공원 기본계획서 등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3. 국립공원 현황

국립공원제도는 England 와 Wales에만 있으며

Scotland에는 이제도 대신에 국립경관지역(National Scenic Areas)제도가 있고, Northern Ireland는 자연경관지역(Area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ONB)제도가 있다. 경관보전지역의 현황은

표 1. 영국의 경관보전지역 현황

구 분	개 소 수	면적 및 길이
국립공원(National Parks)	11	14,032km²
준 국립공원(Equivalent areas)	1	375km²
국립경관지역(National Scenic Areas : Scotland)	40	10,018km²
자연경관지역(Area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ONBs : England & Wales)	37	17,084km²
자연경관지역(AONBs : Northern Ireland)	9	2,803km²
해안경관지역(Heritage Coasts)	40	1,370km
자연보전지역(Environmenatally Sensitive Areas : England & Wales)	6	1,800km²

표1과 같으며, 국립공원은 11개소이고, 총면적은 14,032km²로서 England와 Wales의 총면적 151,127km²의 9.3%에 해당되는 높은 비율이다. 준국립공원지역은 Hampshire주에 위치하고 있는 New Forest로서 서기 1066년 William I세의 England의 지배가 시작된 후부터 이지역을 왕의 사냥터로 지정되면서 서기 1079년부터 New Forest라고 불리우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소유주는 왕실이지만 산림청이 관리를 하고 있다. England에서는 보기 드물게 대부분이 100년생이 넘는 유럽적송, 참나무류등의 수목으로 들어차 있어 경관이 수려하나 목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캬라반 및 야영장시설이 12개소나 있어 1983년도에는 일년간 80만명의 야영객이 이용하였으며, 이곳을 찾는 탐방객은 연간 925만명으로 영국의 어느 국립공원보다도 단위면적당 이용객수가 많아 자연보호에 온갖 힘을 기울리고 있다. 필자는 이곳을 겨울과 여름에 각각 방문했는데 숲속의 사슴, 포니, 초원에 방목된 말과 유럽적송, 유럽자작나무, 참나무류등이 어울려져 거의 완벽한 다목적 임업경영이 실시되는 곳이었다.

Scotland의 국립경관지역은 총 40개소인데 전체면적이 10,018km²로 Scotland 전체면적 78,772km²의 12.7%로 매우 높은 비율인데 많은 곳이 빙하호가 포함되어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되는 곳이었다. Scotland 의 풍치보전청(The Countryside Commission for Scotland)의 제의에 의해 1978년에 지정되었으며, 이지역들은 사유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1972년에 제정된 도시 및 전원계획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s)에 의해 경관훼손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England와 Wales의 자연경관지역은 37개소이고 총면적이 17,084km²로 England와 Wales 전체면적의 11.3%를 차지하며, 국립공원 이외지역중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6년 5월부터 1984년 1월사이에 지정하였고 15km²의 소규모 면적으로부터 1,507km² 등 면적의 크기가 다양하다.

해안경관지역(Heritage Coast)은 총 40개소, 1,370km²로서 1972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전체해안선의 31%를 점유하고 해안선의 평균길이는 34km이며 폭은 대개 2~3km이다.

자연보전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은 England와 Wales에만 있는 제도로 EEC의 법에 의해 1985. 3. 12에 설정된 것으로 생태계 및 경관상으로 보전되어야 할 곳으로 5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일부는 국립공원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본지역내의 농경지는 과거의 농업형태를 바꾸지 못하게 되어 있어 농수산부장관의 통제를 받으며, 이로 인하여 연간 ha당 30~200파운드의 보조금을 정부가 지불하며 목초지, 수벽, 활엽수림, 선사시대유물, 돌담등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다.

England와 Wales의 국립공원현황은 표2와 같으며, 각 국립공원의 위치는 그림 1에 나타냈다. 1988. 5. 1에 지정된 The Broads는 Bure와 Yare강의 유역으로서 호소, 갈대, 소택지, 버드나무와 오리나

무림이 주를 이루는데 큰 호소만도 47개소이며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수로가 200km에 달한다. 매년 25만명이 보트를 갖고 찾아오며, 전체 이용객 수는 65~75만명으로 추산된다. 본래는 국민의 위락적 이용을 위해 국립공원의 지정에서 제외되었는데 호소생태계 및 자연경관이 지난 40년간 계속 파괴되는 등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연파괴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그간의 조사연구에 의해 1988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것이다. 관리상의 문제로는 수질의 악화, 제방의 침식, 소택지의 천이진행, 방목늪지의 관리부재 등이다. 대부분이 사유지인 이곳은 1985년부터 정부에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농민이 3년동안 집약농업을 하지 않는 경우 1년간 에이커당 50파운드의 경비를 풍치보전청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어 농민의 90%가 혜택을 보았으며, 또한 자연보전지역에서는

표 2. 영국 국립공원의 개황

지 역	면 적 (km^2)	지 정 일 자	주민수(천명)	방 문 객 수 (백만명 / 연간)
Brecon Beacons	1,350	1957. 4. 17	32.0	7.0
Dartmoor	945	1951. 10. 30	30.0	7.8
Exmoor	686	1954. 10. 19	10.0	2.5
Lake District	2,280	1951. 5. 9	40.0	12.0
Northumberland	1,031	1956. 4. 6	2.5	1.0
North York Moors	438	1952. 11. 28	25.0	11.0
Peak District	1,404	1951. 4. 17	40.0	20.0
Pembrokeshire Coast	583	1952. 2. 29	22.0	12.5
Snowdonia	2,170	1951. 10. 18	25.0	7.5
Yorkshire Dales	1,761	1954. 10. 12	16.8	8.5
The Broads	287	1988. 5. 1	5.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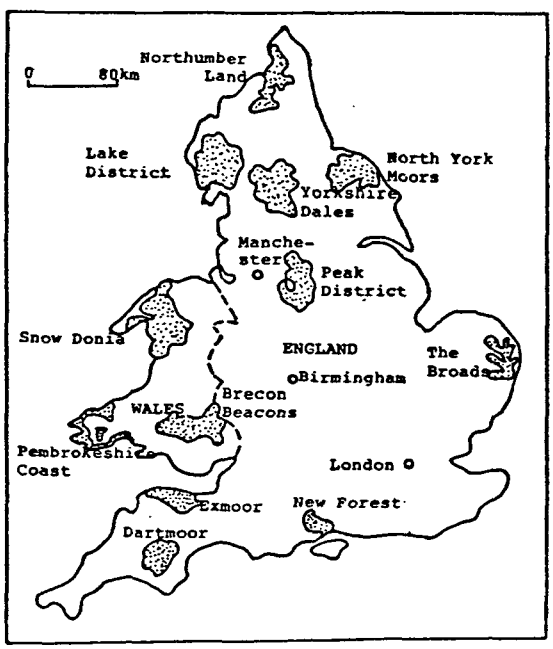


그림 1. 영국 국립공원의 위치도

과거 방법대로 농사를 지을경우 1년간 에이커당 50파운드를, 적극적으로 야생생물을 보전할 경우는 80파운드를 지불하고 있다.

Wales에 위치하는 국립공원은 Snowdonia, Brecon Beacons, Pembrokeshire Coast이며 나머지 8개소는 England에 분포하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England에 설정된 국립공원은 모두 남서부와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Birmingham에서 London에 이르는 지방은 모두 완만한 구릉지로 전부 농경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연간 이용객수는 국립공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Peak District가 연간 2천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Pembrokeshire Coast, Lake District 및 North York Moors도 연간 천만명이 넘는다. 이러한 곳은 과밀이용으로 인한 등산로주변에 침식 등이 일어나 자연보호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탐방객의 집중이용시기는 여름철이며 특히,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방학인 8월이 최성수기이다. 1980년대 초 석유파동 이후 이용객의 증가가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에너지파동도 한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기관의 발달로 유럽대륙여행의 경비가 국내 여행경비와 비슷하게 떨어지자 여름휴가를 스위스의 알프스 및 지중해연안으로 가기 때문인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 국립공원의 연간 예산은 표3에 보이고 있다. 1986년도의 예산은 57만~371만 파운드이며 평균액수는 157만파운드인데 이를 원화 (1파운드를 1,200원으로 환산)로 계산하면 약 23억 55백만원이나 영국의 물가가 우리나라에 비해 2배가 높으므로 우리의 화폐가치로는 11억 78백만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영국의 국립공원은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마을내의 주차장이용에 대한 요금징수, 안내실에서의 책자 및 기념품판매, 자연탐방안내의 요금징수 등이 유일한 예산에 대한 자급원으로 표와 같이 자급율이 35%나 되는 곳도 있지만 실적이 거의 없는 곳도 있다. 영국에서의 국립공원에 대한 이용비용은 국민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립공원 이용세징수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된 것이다.

각 국립공원의 전체 예산중 75%는 중앙부서인 환경부에서, 나머지 25%는 주정부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으나 그 비율은 자급도에 의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1988년에 국립공원지원 정부예산액은 총 1,458만파운드(원화로 175억 9,600만원)로 국립공원별로 나눈다면 150만파운드정도를 중학교의 1년예산과 비슷한 액수로서 국민1인당으로 나누면 19.5펜스(원화로 215원)로 30펜스인 신문지 1장조차 살 수 없고, 19펜스하는 1등우편요금 정도의 액수인데 이러한 액수로는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없다고 국립공원협회 등에서 대처정부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무역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정부로는 예산증액이 난감한 상태이다.

표 3. 영국 국립공원의 예산 및 정규직원수

(1986 / 7 년 기준)

지 역	예산				정규직원수 (명)
	총 액 수 (백만파운드)	중앙정부 지원율(%)	지방정부 지원율(%)	자 급 율 (%)	
Brecon Beacons	0.70	75	25	0	36
Dartmoor	1.39	59	33	8	49
Exmoor	0.98	75	25	0	39
Lake District	2.62	49	16	35	104
Northumberland	0.57	72	11	17	45
North York Moors	0.99	75	25	0	51
Peak District	3.71	58	19	23	142
Pembrokeshire Coast	1.49	67	17	16	63
Snowdonia	1.75	75	13	?	88
Yorkshire Dales	1.47	60	20	20	62

표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규직원수는 36~142명으로서 평균적으로 68명정도이다. 임시 직원수(계절임시채용직원, 임시순시원등)는 대체로 100여명정도가 되며, 각국립공원마다 자원봉사자도 100~300명씩 갖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지라 국민들은 사회봉사에 대하여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어, 각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 자크럽을 갖고 있다. 국립공원도 예외없이 자원봉사 자크럽이 있어 부족한 노동력의 보충에 큰 역활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크럽을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의 전액이 지원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국립공원내의 순찰, 도로

및 등산로의 보수, 교통정리 등이고,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자연탐방안내도 자원봉사자가 맡고 있는데 이런 일은 대학교수등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표4는 국립공원별의 1988년도의 지출내역을 보이고 있다. 1988년의 지출액의 총계는 1,608만파운드로 1987년에 비해 19.5%, 1987년은 1986년에 비해 12.7%가 각각 증가된 액수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경관보전이 28.5%로 가장 높았고, 관리 및 레크레이션의 항목은 각기 23%에 이르며, 교육 및 안내실 운영비가 17%에 달한다. Northumberland는 교육 및 안내실의 운영비가 47.4%에 달하나 대체로 15~20%가 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한 셈이다. 1988년도 전체예산중 자연보전에 대한 항목(경관보전, 지방계획, 교육 및 안내)의 비율이 53.5%가 된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때 영국의 국립공원은 자연보전목적이 레크레이션이용목적보다 앞서고 있어 국립공원지정목적에 따른 관리가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국립공원별 토지이용을 표5에 나타낸바 토지이용율은 평균적으로 농경지 42.5%, 무어랜드인 황무지 45.0%, 삼림 9.7%인데, 이중 무어랜드는 주로 히스가 자라는 곳으로 양의 방목지로 이용되고 있다. 삼림중 침엽수가 우점종인 면적은 전체면적의 6.9%인데, 이러한 지역은 1920년대이후 경제림 조성을 목적으로 조림된 것이다.

표 4. 영국 국립공원별 지출내역(1988년도)

단위 : 천파운드

국 립 공 원	경관보전	지방계획	교육및안내(%)	레크레이션	지방단체 지 원	관 리	계
Brecon Beacons	207.0	65.4	277.7 (27.4)	163.7	31.1	269.4	1,014.3
Dartmoor	516.4	68.9	182.1 (11.7)	343.7	67.0	379.9	1,558.0
Exmoor	414.9	68.0	270.6 (22.5)	217.9	30.6	198.8	1,200.0
Lake District	523.7	352.2	437.5 (19.8)	508.9	68.6	429.1	2,213.0
Northumberland	164.9	9.1	321.2 (47.4)	140.8	–	176.1	677.1
North York Moors	457.9	77.1	157.7 (11.3)	332.0	9.2	362.0	1,395.9
Peak District	1,237.4	264.9	407.6 (12.1)	806.5	123.6	541.3	3,381.3
Pembrokeshire Coast	245.5	119.5	198.3 (15.5)	326.6	23.4	362.1	1,275.4
Snowdonia	351.0	124.0	284.0 (15.7)	453.0	11.0	586.0	1,809.0
Yorkshire Dales	461.3	139.6	200.1 (12.8)	372.8	15.5	395.2	1,559.5
계	4,580.0	1,288.7	2,736.8	3,665.9	380.0	3,699.9	16,084.3
	(28.5%)	(8.0)	(17.0)	(22.8)	(2.4)	(23.0)	(100)

토지소유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국립공원의 평균비율은 국유림 16.7%, National Trust 6.7%, 자연보전협회소유 2.1%, 사유지 73.2%, 기타 1.1%로 대부분이 사유지인 것이 특이하다. 그런데 사유지는 개인소유별로 돌담 및 수벽을 경계선에 따라 조성한 것이 이색적으로 유럽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영국만이 갖는 특유한 경관으로 까지 되었다. 원래 영국에는 Henry Ⅷ세 이전에는 이런 돌담 및 수벽이 많지 않았으나 1534년 Henry Ⅷ세가 수장령을 발표, 바티칸의 카톨릭에서 영국교회가 분리되면서 영국내 카톨릭교회가 갖고 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신흥귀족계급층에게 나누어주면서 등장한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런것 들이 국립공원의 특색있는 자연경관의 일부를 구성하나 경제적사정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되어 가고 있는 돌담, 수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원사무소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필자가 Exmoor국립공원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25km를 횡단하는데 2차선의 도로만 남기고 양쪽이 계속 돌담이 조성되어 있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진촬영이 곤란한적이 있었다.

국유림이 16.7%이나 이중 국립공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2.3%정도로 건물, 주차장 등의 토지만을 갖고 있을 뿐이며, 산림청소유가 7.0%이고 그외는 대부분이 국방부소유로 군사훈련에 이용되고 있다. National Trust에서는 6.7%를 소유하고 있는데, 특히 Lake District에서는 28.4%나 소유하고 있으며 경관이 아름다운 호수주위의 대부분의 토지이다. National Trust는 1895년에 설립된 민간단체로 현재는 여왕의 어머니가 회장인 이 단체는 주로 귀족등의 개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기증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 국민에게 유료공개하여 생긴수익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영국내에 가치 있는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단체로 2,000개소의 건물, 정원, 공원등을 일반국민들에게 유료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만도 200만명이나 된다. National Trust에 소속되어 있는 유명한 건물, 정원은 Stourhead, Chartwell(Churchill 생가), Sheffield Park Garden, Wakehurst Place, Ascott, Clivedeh등이 있다.

필자는 1년간 (1988. 8~1989. 8)영국에 체류하

표 5. 영국 국립공원별 토지이용

	Brecon Beacons	Dartmoor	Exmoor	Lake District	Northumberland	North York Moors	Peak District	Pembrokeshire Coast	Snowdonia	Yorkshire Dales
토지이용(%)										
농경지	46	35	57	33	9.5	42	49	84	21	41
황무지(무어랜드)	42	52	28.5	50	71	39	39	12	60	56
침엽수림	8	4.5	5	6	9.5	19	4.5	3	12	2
활엽수림	4	4.5	5	5	0.59	2.5	2.5	1	2	1
기 타	0	4	4.5	6	0	5	5	0	5	0
토지 소유별(%)										
국유림	19.1	21.0	7.6	16.4	42.9	17.8	17.7	6.2	17.5	0.8
국립공원	7.0	1.4	4.2	3.8	0.2	0.6	4.2	0.5	1.0	0.1
산림청	8.0	1.8	2.0	5.6	18.9	16.6	0.5	1.2	15.6	0.2
National Trust	3.0	3.7	10.0	24.8	0.7	0.8	9.7	4.7	8.7	1.3
자연보전협회	0.6	18.0	0	0	0	0	0.1	0.5	1.5	0
사유림	76.7	57.3	78.4	58.8	56.4	76.7	72.5	88.0	69.8	97.8
기 타	0.6	0	4.0	0	0	4.7	0	0.6	1.4	0.1

사진 1. Dartmoor의 Hunter's Tor에서 내려다 본 모습. 멀리 주차장이 보이고 히스의 집단서식지로 교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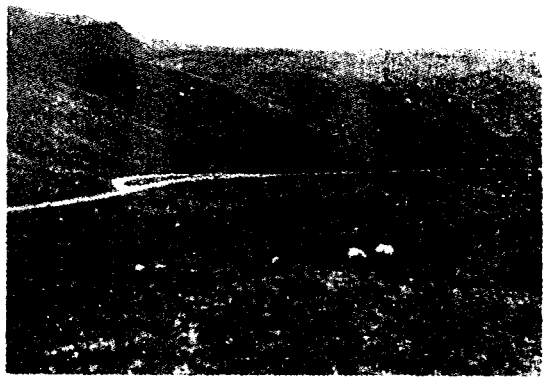


사진 2. Brecon Beacons의 자연경관 모습. 넓은 면적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초원지대로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이 여유있게 보인다.

사진 3. Dartmoor의 자연경관 모습. 돌담과 히스 집단서식지사이에 난 산책길로 말을 탄 이용객이 지나고 있다.

사진 4. Brecon Beacons의 Crickhowell마을 모습. 300~400년된 Wales의 전형적인 주택으로 이의 보전에 국립공원 당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면서 국립공원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많이 모으고 많은 곳을 답사하려 했지만 국립공원마다 완벽한 자료가 너무 많아 경비가 모자라 100여종만 수집하였다. 또한 답사를 나선 곳은 Brecon Beacons, Dartmoor, Exmoor, Peak District, Snowdonia이나, 이중 관리상태를 샅샅이 점검한 곳은 Brecon Beacons, Dartmoor로서 영국의 국립공원관리는 위의 두장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4. 국립공원관리

(1) 관리기구

국립공원의 주요정책의 수립은 환경부(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에 속하는 풍치보전청(Countryside Commission)에서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각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업무는 정부의 예산을 분배해 주는 일이고, 나머지 업무는 1974년부터 모두 주정부에 관리 전환하였다. 또한 영국 국립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홍보, 교육책자를 발행하여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풍치보전청에서 내걸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른 공공정책이 국립공원정책에 미칠 영향의 파악 및 대응, 국립공원내의 전통적 농업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 준국립공원인 New Forest의 보전, 국제교류의 유지, 국립공원내의

자연보전강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 유지,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협력강화, 각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간의 교류강화, 대기 및 수질오염으로부터의 국립공원의 보호등이다.

풍치보전청 출판부에서 발행한 책자는 지금까지 모두 257종이며, 1975년이전 발행된 87종은 절판이 되었고 1976년이후 발행된 170종은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필자도 통신구매방법으로 40여종에

표 6. 영국 Countryside Commission의 발행 출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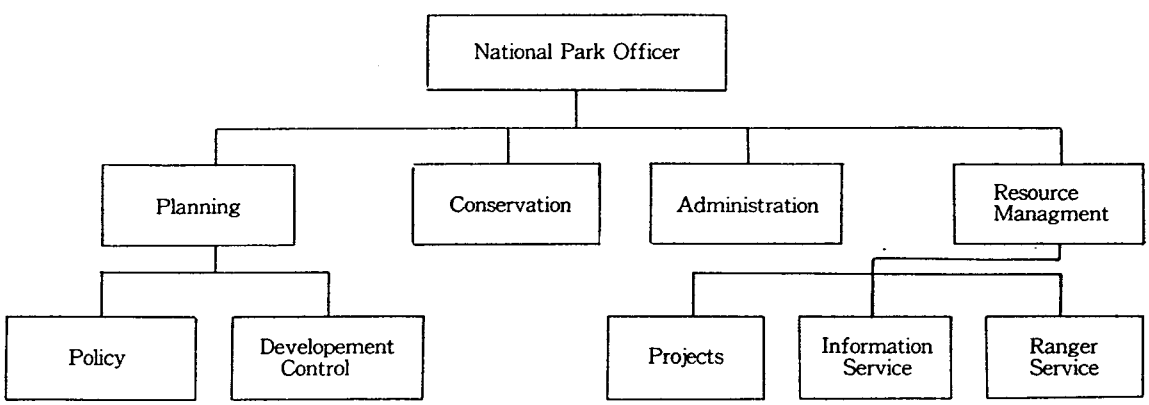
구 분	대 표 책 자	
1. Countryside Commission		총 23종
– general information	Your countryside Our Concern	
– annual reports	Annual Report 1987–88	
– grants	Grants for countryside conservation and recreation	
– documents		
– bibliographies	Agricultural landscapes	
2. Conservation and land management		총 46종
– landscape surveys	Landscape assessment of farmland	
– agriculture and conservations	New agricultural landscapes : Issues, objectives and action	
– demonstration farms	Conservation monitoring and management	
– forestry and woodlands	Tomorrow's city forest	
– heritage landscapes	Heritage landscapes management plans	
– water and land drainage	The water industry in the countryside	
– landscape conservation	Grants for landscape conservation	
– countryside conservation handbook	Managing small woodlands	
– land management	Management plans	
– uplands	A better future for the uplands	
3. National parks and planning		총 50종
– national parks and equivalent area	National parks in England and Wales	
– arear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rear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 A policy statement	
– heritage coast	Heritage coasts in England and Wales	
– planning and development control	Planning for countryside in metropolitan areas	
4. Promoting enjoyment of the countryside		총 97종
– general information	Policies for enjoying the countryside	
– rights of way and access	Changing the rights of way network	
– long distance routes	Walking in Britain	
– guidebooks to long distance routes	Pembrokeshire Coast Path	
– recreation site management	Encouraging visitor redistribution	
– visitor services and interpretation	Camping barns in the Peak District	
– common land	Management schemes for commons	
– transport	Recreational public transport	
– urban fringe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5. Training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총 3종
6. Educational and audio-visual materials	Watch over the national parks video	총 4종
7. Maps		총 8종
8. Related publications	The Changing Countryside	총 10종

달하는 책자를 구입하였는데 내용이 각 방면으로 다양하여 표6에 대표적인 것만을 골라 넣었다. 나누어진 분야를 살펴보면 국립공원에 대한 일반적 내용, 보전 및 토지이용, 국립공원계획, 레크레이션에 관한 내용, 자연보전전문인의 훈련, 시청각 교육자료, 각종 지도, 자연보전에 관계된 분야 등이며, 각 국립공원당국은 또 나름대로 고유한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책자안내 팜플렛인 "Catalogue of Publications" 만도 40쪽에 해당되니 거의 완벽한 셈이다. 신문발행은 "National Parks Today"를 계간으로 1년에 4회하고 있다.

영국 국립공원의 정비된 관리의 시작은 1974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1967년부터 국립공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나 아직껏 변변한 책자하나 국립공원당국에서 발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립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내년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계산상으로는 영국보다 16년이 뒤떨어지나 이런 책자발행면으로는 100년정도 뒤떨어진 셈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문제는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렇듯 무사안일하게 국립공원정책을 계속 이끌어 나갈런지 어떨지 모르겠다. 영국 국립공원당국에서 발행되는 책자는 대부분 직원들에 의해 씌여지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풍치보전청내에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는바, 필자가 2~3년전에 주장하던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연구부서의 설치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기만 한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기구는 자연의 보전과 레크레이션장소의 이용에 대한 균형유지의 책임을 지게 된다. 각 국립공원의 관리기구는 국립공원위원회(National Park Committee)가 있으나, Peak District와 Lake District는 각각 The Peak Joint Planning Board 및 Lake District Special Planning Board가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수는 각 국립공원의 실정에 맞게 21~54명까지 구성되며, 인원의 ⅔는 국립공원의 행정구역내의 주에서 선출하고 ⅓은 중앙 환경부에서 선출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예산확정, 직원채용, 공원계획 및 개발확정, 법적·기술적·관리적인 전문내용의 결정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지방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공원목적달성에 정치적·기술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하고 있다.

1974년이후부터 각 국립공원에서는 관리소장을 채용하였으며, 관리소장 밑에는 계획, 경관보전, 토지관리, 안내실운영, 공원순시, 총무의 일을 책임질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North York Moors 국립공원의 직원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기본계획서 및 사후평가서 작성

영국 국립공원의 설치목적은 1949년에 제정된 국립공원법에 1) 자연경관의 보전 2) 자연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레크레이션장소의 국민에 대한 제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연보전에 의해 국립공원내의 농업발달의 위축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감소되자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 산업의 발달로 인한 국민들의

여가시간의 증대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립공원의 이용객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은 계속적인 경제성장과 질적으로 양호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어 국립공원은 여러 방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도전 받고 있는 국립공원의 세부적인 당면문제는 광산채굴, 공원내의 군사훈련실시, 이용객의 증대로 인한 보다 많은 레크레이션장소의 제공, 재래농업형태의 유지, 목재수요에 의한 경제림의 조성, 전통지방문화의 유지, 국립공원내의 옛건축물의 보수 및 관리등이다.

영국의 국립공원법에 의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상기의 3대 목적과 도전받고 있는 문제에 입각하여 국립공원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의 현실에 대한 타당성 검토인 사후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다. 각 국립공원의 기본계획서 및 사후평가서의 작성연도를 표 7에 보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국 국립공원의 관리체계가 확립된 것은 1974년부터이며 이때부터 국립공원기본계획서작성에 착수하였으나 대부분이 3년후인 1977년에 작성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것은 국립공원의 기본 계획은 매우 중요하기에 작성후 계속적인 검토가 따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일부로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기본계획초안을 작성한다. 작성후 이 초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여러번 검토하고 이를 국립공원과 관계가 있는 각 단체(예를 들면 정당, 자연보전회등)와 공원내의 주민들에게 발송한 후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갖고 이때에 수렴된 의견을 참작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수정하여 다시 위의 단체와 개인에 열람시킨 후 이의가 없을 때는 환경부에 제출, 허락을 받아 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기에 3년뒤인 1977년에 대부분 끝나게 되었고, The Broads는 1982년에 자연보전지역으로서의 기본계획서가 작성되었으나 새로 국립공원에 지정되면서 현재 다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지 5년이 지나면 사후평가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작성 못지 않게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 보통 2~3년이 걸리게 된다. Brecon Beacons는 1985년부터 기본계획의 사후평가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6년 6월에 마치었는데, 이 초안을 200개의 기관에 보내고 1986년 8월에 2회의 공청회를 열어 약 70개의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은 200개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 및 수정을 하여 확정되었다. 이런뒤에 환경부장관의 허락을 받아 기본계획서 사후평가서를 출판하게 되니 검토과정이 철저할 수 밖에 없다.

표 7. 영국 국립공원 기본계획서 및 사후평가서 작성년도

지 역	기본계획서 작성 년 도	사후평가서 작성 년 도
Brecon Beacons	1977	1987
Dartmoor	1977	1983
Exmoor	1977	1982
Lake District	1977	1986
Northumberland	1977	1984
North York	1977	1984
Peak District	1978	1987
Pembrokeshire Coast	1977	1982(1차) 1987(2차)
Snowdonia	1977	1987
Yorkshire Dales	1977	1984
The Broads	1982	–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기본계획서의 작성은 형식적인 일로서 한 용역업체에 일을 맡겨 실시하고 있어 자연생태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즉 자연보전의 맥락상 자연보전지구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도 비용 및 전문가부족의 문제로 식물, 동물등의 일람표를 기존 문헌에서 인용하고 있고, 생태계의 구조분석은 하지도 않은채 자연보전지구를 설정한다. 그리하여 어느 국립공원은 해발고가 높은 곳을 자연보전지구로 지정하여 바위만이 있는 곳이 대상지역이 되고, 삼림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곳은 자연환경지구가 되었을 정도이다. 그러하니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사후평가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또 다시 용역단체에게 사후평가까지 하게 하여 형식적으로 마무리진다면 자연파괴의 책임은 용역을 맡긴 부서와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져야 할 것이다. 영국 국립공원에서는 기본계획서와 사후평가서를 각 안내실에서 누구에게나 판매하여 그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계획서를 읽어 보려면 관리사무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얻어서 복사해야 하는 등 매우 비공개적이다. 이용자에게 입장료까지 징수하여 이러한 책자를 발급하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다.

(3) 이용행태

Dartmoor 국립공원의 이용행태를 본란에서는 살펴보기로 한다. 200년전만해도 이 Dartmoor는 원시성을 유지하리만큼 탐방객이 거의 없었으나 1911년 London에서 이 지방까지 기차가 개설되면서 매년 이용객수가 증가되어 최근에는 연간 800만명이 945km²의 면적인 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객의 66%가 5월부터 9월사이에 찾고 있으며, 일일이용객이 체류이용객보다 많고 최대체류이용객은 1일에 4~5천명에 달하며, 휴가때인 7~8월에는 1주일정도의 체류가 많다. 흔히 이용하는 숙박형태는 민박과 자취형태가 주를 이루나 Pembrokeshire Coast, Lake District, Peak District 등은 야영과 캬라반형태가 숙박형태의 50%이상을 차지한다. 필자는 국립공원에서의 야영장이용행태를 관찰하지 못 했으나 준국립공원인 New Forest에서는 관찰하였다. New Forest의 면적은 375km²로서 11개의 캠프장에 3,730개의 텐트 및 캬라반을 수용할 수 있으며, 편익시설의 종류에 따라 A, B, C의 세종류로 나뉘며 이용요금도 차이가 난다. A지역에서의 1일 이용액은 1인당 비수기에 4파운도, 성수기에 5.7파운드이며 이지역은 화장실, 온냉수의 수도, 샤워시설, 소형세탁기, 쓰레기처리장, 개스시설, 전기시설, 신체부자유자를 위한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예약은 이용 14일전에 하게 되어 있으나 수용능력이 넘치면 예약이 끝난다.

필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영국 국립공원내에 우리나라와 같은 호화스러운 호텔이나 상가는 없으며, 400~500년씩 된 건물들을 보전하면서 호텔과 상가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 저기에 흩어진 개인집의 민박이 주종를 이룬다. 필자도 Dartmoor, Brecon Beacons에서 노부부가 사는 집에서 민박을 했는데 깨끗한 방, 섬세한 실내장식, 넓직한 정원등을 갖춘 포근한 집으로 하루밤을 쉬어가려는 나그네에게는 천국이었다. Dartmoor만해도 산책로만 4 70km나 되어 군데 군데 있는 민박집을 찾아 다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국립공원 신문의 숙박안내를 보고 예약을 해야 한다.

Dartmoor 국립공원은 이용객의 95%가 자동차로 탐방하고, 또한 전 이용객의 43%가 자동차에서 300m이상의 거리를 걷지 않고 자동차로 탐방한다. 탐방목적은 산책 59%, 관광 29%, 소풍 15%, 카페나 기념품점 이용 13%, 독서 10%, 하이킹과 등산 6%이다. 필자가 느낀바에 의하면 영국인들은 국립공원이용을 정적인 행태로 하는데, 한 예로 한 가족이 자동차로 도착하면 가져온 샌드위치 몇 조각과 보온병을 배낭에 넣고 쌍안경, 책, 노트, 지도를 들고 산책에 나선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자동차에 싣고 온 접의자를 내어 펴 놓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차분한 분위기라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어 떠들지를 못한다. 쓰레기통은 해발고가 낮은 곳에 위치하는 주차장에 렉카차로나 끌고 갈수 있을정도의 대형 콘테이너형의 것이 놓여 있고, 그이상의 해발고 위치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Brecon Beacons에서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400파운드(48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적혀 있는 경고판을 보았으며, 쓰레기문제는 전혀 야기되지 않았다. 화장실은 가능한 독립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대개 안내실에 붙어 있었으며 매우 청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되는 버너의 사용은 영국에서는 여러번 국립공원을 찾았지만 전혀 없었다. 국립공원은 자연학습을 하는 곳이지 행락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안내원의 말이 수긍이 간다.

(4) 안내실운영 및 자연탐방안내 제도

영국 국립공원에서 가장 부러운 제도는 안내실(Information Centre)의 운영이었다. Dartmoor 국립공원에는 7개소의 안내실이 있는데 즉 Postbridge, Princeton, Tavistock, Steps Bridge, Newbridge, Okehampton, Parke Barn이고, 이중 Steps Bridge 과 Newbridge는 캬라반내에 안내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동이 가능하며, Parke Barn은 소외양간을 개조한 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안내실의 개방은 부활절부터 10월말까지 하고 있으며, Postbridge의 안내실을 찾았을때는 자원봉사자인

할머니가 안내인이었다. 전체가 50평정도의 2층건물로 일층의 반은 화장실, 반은 안내실로 책자 및 기념품이 가득 차 있었고, 이층은 VTR실로 필자 4식구만이 시청요청을 했는데도 상영을 하여 주었다. Newbridge의 캬라반내의 안내실에도 각종 책자 및 기념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체가 부자유한 중년부인이 안내원을 하고 있었는데 사진촬영시 자신은 찍히지 않도록 부탁을 해왔다.

표8은 Dartmoor 국립공원의 안내실 이용현황으로 1982년에 15만명이던 이용객이 1984년에는 22만 5천명까지 증가하였다가 1987년에는 21만명으로 매년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 매우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용객에 판매되는 책자와 기념품도 총 7만파운드(원화로 8천4백만

표 8. Dartmoor 국립공원의 안내실 이용현황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이 용 객 수(명)	149,083	175,030	225,112	211,567	203,877	208,024
판 매 액(파운드)	22,561	31,985	48,742	55,789	60,342	70,601

사진 5. Dartmoor의 Postbridge의 안내실의 외부모습. 사람이 걸어가는 오른쪽은 화장실이고, 왼쪽문으로 들어가면 안내실이다.

사진 6. Dartmoor의 Postbridge의 안내실의 내부모습. 자연봉사자인 할머니 한분이 앉아 계시고 있고, 각종 기념품(티셔츠 등), 포스터, 진열된 일부 책자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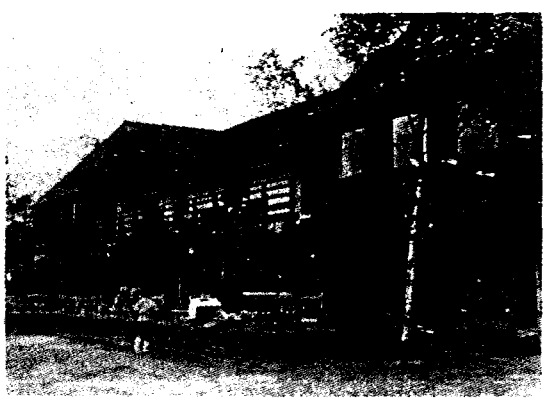


사진 7. Brecon Beacons의 안내실(Mountain Centre)의 외부모습. 2층 건물로 1층은 찻집이며 2층이 안내실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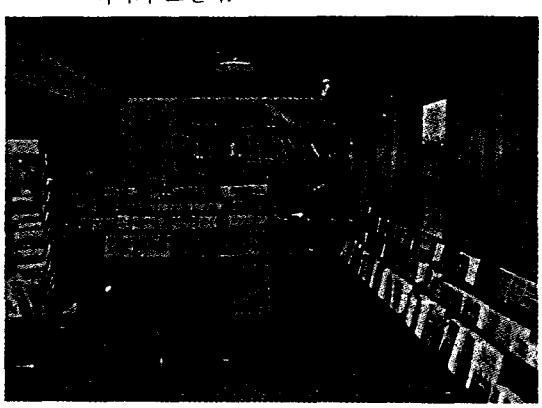


사진 8. Brecon Beacons의 안내실의 내부모습. 국립공원에 대한 안내책자 130여종들로 가득차 있다.

원)를 넘는다. Brecon Beacons의 안내실에 비치된 책자만도 134종으로 중요내용은 표9와 같다. 표에서 보이듯이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기념품으로는 수건, 열쇠고리, 포스터, 뱃지, 연필, 고무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국립공원의 면적중 9.7%가 삼림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야생초본류의 자생지 등을 묶어 자연보전지구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이런 곳은 철조망으로 막고 자연탐방안내인 없이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 Dartmoor의 경우는 1년에 한번 발행되는 "The Dartmoor Visitor"신문에 3~10월까지의 자연탐방(Guided Walks)의 내용을 공개하여 자연탐방을 예약금과 함께 예약을 받는다. 예약금도 1.5, 3, 6시간등의 시간에 따라 다르며, 총 9명의 레인저가 있고 이용현황은 표10과 같다. 연간 500회정도가 이루어지고, 매년 5,000 명정도의 이용객이 참여하여 자연탐방을 하며 자연학습을 받게 된다. 이용객에 많이 제공되는 주제는 옛성방문, 산업혁명당시의 공장방문, 중세마을방문, 선사시대유물관찰, 저수지생물 관찰, 자연보전지구방문, 야생생물관찰, 무어랜드 산책, 나비 및 나방이 관찰 등이었다.

이러한 안내인에 의한 자연탐방제도이외에도 안내실에 비치된 책자를 구입하여 이용객 스스로가 자연을 탐방하는 제도가 있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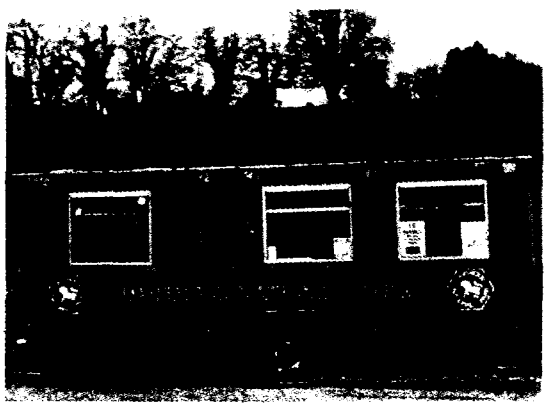


사진 9. Dartmoor의 Newbridge에 설치된 캬라반의 안내실 모습. 고정건물을 지으면 경관이 파괴될만한 곳에는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사진 10. Dartmoor의 자연보전지구로서 철조망을 쳐 놓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오른쪽에 자연탐방(Guided Walk)의 안내판 표시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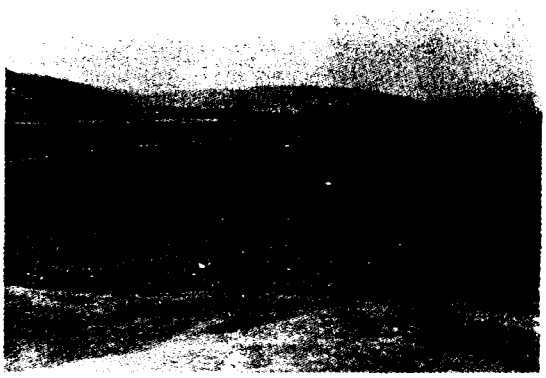


사진 11. Brecon Beacons의 고사리집단서식지.
원래는 히스가 우점종이었으나 모두 고사리에 의해 자연도태 되었다.

사진 12. Dartmoor의 주차장모습.
국립공원내의 주차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지 않고 자연초종이 자라게 놔둔다.

적인 책자가 " Dartmoor Walks for Children"이다. 이 책자는 총 264쪽으로 되어 있고 기상, 지질, 역사, 식물, 동물, 미생물, 물고기등에 대하여 관찰할 내용이 적혀 있으며, 또한 36개의 코스별로 선생님 및 어른이 어린이에게 가르칠 내용과 어린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관찰내용 및 질의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실은 완전한 현장자연학습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공원은 즐기며 떠드는 장소가 아니라, 독서하고 자연을 감상하며 항상 무언인가를 배우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완벽한 안내실의 준비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이용행태를 탓하기 앞서 이용객들이 자연탐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관리당국은 힘써야 한다. 우리 응용생태연구회에서는 매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하여 조사연구하는데 식물자원, 삼림생태계의 구조, 야생조류의 밀도, 이용객의 행태, 등산로의 문제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가능한 각 국립공원의 관리직원을 참여시켜 함께 연구하는 동안 자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직원참여를 부탁하지만, 인원이 적다든가 혹은 직원 수준이 낮아 못하겠다는 등으로 거절되어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6) 경관보호

국립공원을 구성하는 숲의 면적이 10% 미만이지만 이것도 70%가 침엽수인공림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부적당하며, 또한 작은 면적으로 분산되어 자연경관상으로도 아름답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립공원관리당국은 활엽수인 참나무류와 야생조류유치를 위한 산사나무, 마가목을 위주로 한 숲을 조성하되 가능한 큰 단지로 하고, 식재를 할 때는 반드시 삼림경관의 디자이너를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자생종의 식재를 생각하여 Lake District 국립공원에서는 유럽너도밤나무의 식재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수종은 위의 국립공원에서 200km떨어진 곳에까지 자생하므로 본 국립공원에서는 식재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총 면적의 45%가 황무지인 무어랜드인데, 이런 곳의 주종을 이루는 식물은 히스(*Calluna* spp.)이다. 히스는 진달래과 식물의 반목본으로 키가 30cm미만인 것과 1.5m까지 자라는 것이 있으나 키가 30cm미만인 것이 우점종이다. 선사시대에는 나무가 울창하던 숲이었으나 양의 방목지로 바꾸기 위하여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자 여기에 나타난 것이 히스였다. 히스는 양의 사료식물로 우수하나 양지에 자라는 고사리는 키가 30cm이상되어 양성인 히스보다 크게 자라 히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종국에는 히스를 도태시킨다. 그러므로 사유지가 대부분인 히스집단지를 매년 2~3월에 불을 내어 고사리의 침입을 막고 양이 좋아하는 히스의 새싹이 나오는 것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불을 내면 산토끼, 다람쥐 등의 소동물과 메뚜기, 나비, 나방이등의 곤충과 토양미생물이 모두 죽게 되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농민에게 불을 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고사리가 침입하여 히스를 완전히 도태시켜 거의 완전한 고사리밭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고사리는 양과 말들이 좋아하지 않는 식물로 사료로서 이용되지 않자 그 세력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국립공원당국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히스집단자생지에 양, 말, 소등을 방목하면 고사리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방문한 Brecon Beacons, New Forest에서 10~30ha의 면적이 고사리로 덮고 있어 색다른 경관을 조성하고 있었다.

Dartmoor 국립공원에는 야생말인 포니가 방목되고 있었다. 이 포니는 Dartmoor 국립공원의 상징동물로 되어 있으며, 인간이 영국섬에 살기 전인 28,000년전부터 살기시작했는데 50년전에는 25,000마리가 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5,000마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몇년만에 한번씩 찾아오는 혹한으로 그 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Dartmoor 국립공원에서는 포니가 있는 모습이 자연경관을 생동감있게 하는 요소이므로 자연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이며 또한 탐방객에게 보호를 당부하는 전단을 돌리고 있다.

국립공원은 한나라의 자연경관의 보호지로서 살아있는 국가의 보물인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의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이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으나 영국은 보존된 자연생태계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사유지를 중심으로 하여

표 9. Brecon Beacons 국립공원 안내실의 출판물 목록

구 분	출 판 물 명
1. Offcial publications	Brecon Beacons National Park, B.B.N.P. Scenery : A Geological Interpretation, Birds in the N.P., The B.B. Mountain Centre, 30 Walks in the Abergavenny Area, Short Walks around Brecons, What to see near the Mountain Centre, Field Monuments, Walks in the B. B. 등. 총 17종
2. National parks, countryside and geology	Portrait of the Beacons, British Regional Geology, Welsh Place Names and their Meanings, Afforestation-Case Against Expansion, Watch over the National Parks, 50 Years for National Parks 등. 총 11종
3. Holidy and town guides	North Wales, Where to Stay in Wales, Wales-Bed and Breakfast, Going Places, Brecon Beacons and Black Mountains by Car, Wales : A Guide for the Disable Visitor 등. 총 17종
4. History, archaeology and buildings	Building in the B.B.N.P., Brecon Cathedral, Guide to Ancient Monuments : Wales, Ancient West Wales from the Air, Glimpse of the Past, Big Pit Mining Museum, Stone and Steam in the Black Mountains 등. 총 26종
5. Natural history and forestry	Great Nature Trail of Wales, Animals-A Collection of Drawings, Trees-A Collection of Drawings, Welsh Wild Flowers, Nature in Wales, Birds of Breconshire 등. 총12종
6. Outdoor recreations	Expedition Guide, Mountain Rescue and Cave Rescue, Safety on Mountains, Usk Valley Walks, Welsh Angling Guide 등. 총 30종
7. Maps	Ordnance Survey 1:25,000 "Outdoor Leisure" Maps of the B.B.N.P., Ordnance Survey 1:50,000, Other Maps등. 총 7종
8. Study resources	Upland and Hill Farming in the N.P., Bibliography of the N.P., Newsletter 등. 총 7종
9. Policy statements, reports and studies	N.P. Plan First Review, N.P. Plan appendices, Functional Strategies, Map of Moor and Heath, Casual Recreation in the National Park, Visitor Surveys at Popular Sites, Beacons and Cwm Taf Area Study Reprot 등. 총 17종
총 계	총 134종

표 10. Dartmoor 국립공원의 자연탐방안내 현황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공 고 회 수	740	725	557	541	482	518	504	390
취 소 회 수	47	82	40	36	20	52	50	27
참 석 인 원 (명)	8,605	6,939	4,535	4,809	4,911	4,053	3,744	3,629
매회당 참석 인원	12.4	10.8	8.8	9.5	10.6	8.7	8.2	10.0
단 체 탐 방 횟 수	87	103	93	68	86	55	64	65
단 체 참 석 인 원	2,324	2,718	2,521	1,814	2,346	1,711	1,375	1,228
총 참 석 인 원	10,929	9,657	7,056	6,623	7,257	5,764	5,119	4,857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비록 파괴된 자연생태계이지만 보호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독일, 스위스등의 국립공원은 자연보존이 우선되어 일반탐방객이 접근할 수 없는 오지에 설치되어 있다. 유명한 Mont Blanc, Matterhorn, Jungfrau는 국립공원이 아니기에 일반 관광객이 해발 3,500m까지 기차나 케이블카로 등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만 되면 보존보다는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앞서고 있다.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생태계가 모두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자, 국립공원관리당국자, 이용자 모두가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을 보존하겠다는 뚜렷한 신념을 갖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